

大學史의 編纂과 大學아카이브즈(Archives)의 運用

한 명근^{*)}

목 차

1. 머리말
2. 大學史 편찬과 대학아카이브즈
3. 대학기록의 중요성과 관리체계
 - 1) 대학기록의 중요성
 - 2) 대학기록의 관리체계
4. 대학아카이브즈의 運用
 - 1) 대학기록의 조사 수집
 - 2) 대학기록의 활용과 공개
 - 3) 객관적인 大學史 서술
5. 맺음말

1. 머리말

미국의 기록학(Archival science)의 저명한 학자인 William J. Maher는 대학 아카이브즈(Archives)¹⁾와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학아카이브즈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록 유산(Documentary heritage)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접근

^{*)} 본교 사학과 강사, 韓國國家記錄研究院 研究員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 인원 자원, 보유물(Holdings), 설비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목표는 '그 대학의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대학의 생존과 발전 및 교육적 사명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²⁾ 대학아카이브즈의 기본 목적은 대학의 정체성을 확보케 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아카이브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몇몇 대학에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아카이브즈를 설립하여 운영 중³⁾에 있으나, 대부분이 대학사 편찬 자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학기록의 보존과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외국 대학아카이브즈의 예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대학아카이브즈 설립과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개교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大學史'⁴⁾ 편찬을 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아카이브즈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아카이브즈 설립과 대학기록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방향을 살펴봄을 목적으로 하였다.

- 1) 본고에서는 '대학기록관', '대학기록보존소', 또는 '대학역사자료실' 등 대학사 자료를 소장하고 활용하는 곳을 편의상 '대학아카이브즈'라고 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 가운데 아카이브즈의 본래적 요소를 갖춘 대학은 많지 않다. 한국 대학의 대부분은 대학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국한되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록의 관리 및 활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지향해야 하는 형태의 아카이브즈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보편적 의미에서의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2, p.17-18.
-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999년) 및 동시행령·시행규칙(2000)에서는 '국공립 대학 및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에서의 대학아카이브즈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실정이다. 최근 경북대가 법률에 의거한 <대학기록관>을 설립하였으며, 서울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자료관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이외 10여개 대학에서 대학사 자료실로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운영되고 있다.
- 4) 대학 역사의 편찬에 대해 '校史', '年史', 또는 '沿革史'라고 칭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大學史'로 칭하며, 필요에 따라 '沿革史' 또는 '年史'로 표기하였다.

2. 대학사 편찬과 대학아카이브즈

대학아카이브즈의 임무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훌륭한 기억장치,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수단, 교육과 연구의 실현도구, 사회의 정보 및 문화보존을 위한 대외 협력창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런데 초기 대학아카이브즈는 앞에서의 목적과 임무와는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 곧 증거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대학아카이브즈의 출현 배경은 중세·근세 유럽의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설치·창립 등의 역사적 경위를 증명하는 문서·기록을 보존하여 둘 필요성-예를 들면 학위수여권의 근거를 보여주는 교황칙허장 등을 보유할 필요-, 둘째 도시의 법에 대항할 대학의 법적 근거를 보여주는 문서나 학내 재판 기록 등을 보존하여 둘 필요성, 셋째 교회·제후들의 기부에 의한 토지 기타 대학 재산을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대학기록의 필요성에 의해 대학아카이브즈가 중요시 되었다.⁶⁾

그런데,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사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활성화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15세기 중반부터 대학관계 문서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인식됨에 따라 대학문서의 의식적인 보존·관리가 행해졌다. 대학 자체의 연혁사를 편찬하는 차원에서 대학사 자료가 필요하였고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⁷⁾

이처럼 중세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존립과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역할에서 시작되었고 대학기록은 자체 대학연혁사의 기본자료로써 그 중요성이 커져갔다. 그리고 근대사회가 되면서 각 대학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학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학사를 편찬하였으며, 이에 부수하여 독자적이며 전문적인 영역에서 대학아카이브즈의 설립이 촉진되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아카이브즈가 설치되어 있는 미국의 대학은 초기 대부분 공동품 연구, 도서관 혹은 족보적 성격에서 그 대학의 기록물을 확보하고 관

5) 김상호,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6., p.3.

6)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ブズ (archives) とはなにか」, 『東京大學史紀要』 4, 1983.7., pp.1-2.

7) 彌永史郎, 「大學文書館の成立過程」, 『東京大學史紀要』 4, pp.8-10.

리하였는데, 20세기 고등교육기관의 폭발적인 팽창에 따라 대학아카이브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주로 ○○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록 관리의 개선 및 대학기관의 역사 서술을 위한 아카이브즈가 설립되었다.⁸⁾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학아카이브즈 중 U.C.버클리대학아카이브즈처럼 1875년 개교와 동시에 발족한 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사 편찬과정에서 발족하였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1836년 200년사 편찬시 대학기록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오늘날의 대학아카이브즈가 설립되었다.⁹⁾

일본 역시 대학의 개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사를 편찬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아카이브즈가 발족하였다. 일본에는 60여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운영 중¹⁰⁾인데, 이들 대학의 대부분은 연혁사 편찬 작업 종료 후 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대학아카이브즈라 할 수 있는 〈東北大學記念資料室〉은 1960년 대학50년사 편찬사업을 계기로 하여 1963년 대학 역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¹¹⁾ お茶の水女子大學에서도 연혁사 편찬 업무와 연동하여 1966년 〈大學資料室〉을 개설하였다.¹²⁾ 동경대학아카이브즈의 출발은 1986년 『동경대학100년사』 간행이 종료됨과 함께 12년간의 백년사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대량의 대학기록이 편찬 이후 유실될 것을 우려한 편집실전문위원회의 제언에 의해 서였다. 이들은 100년사가 종료되기 전인 1985년 3월 『東京大學史史料센터(가칭)設置提案』를 제출하여 체계적인 대학기록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¹³⁾ 그 결과로 1987년 4월 〈東京大學史史料室〉이 출범하여 학술잡지의 발행과 자료의 관리, 홍보,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⁴⁾ 名古屋대학은 대학 창립 50주년 기

8)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p.8.

9)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 (archives) とはなにか」, pp.3-4.

10) 김기석,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현지 조사 결과보고」, 서울대 기획실 대학기록관리실, 1999.5., p.18.

11) <http://www.library.tohoku.ac.jp/archives/gaiyo.html>.

12) 「東京大學關係諸資料の保存と利用に關する豫備的研究」報告書および同 「附屬資料」抄録, 『東京大學史紀要』5, 1986.2., p.145.

13) 「東京大學史史料に關する提案二束」, 『東京大學史紀要』5, 1986.2., pp.131-132.

14) 김기석, 앞의 글, pp.18-22 참조.

넘사업으로 편찬된 대학50년사 편찬 이후 편찬사업으로 수집된 귀중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검토 과제가 부상되어, 1996년 <大學史資料室>이 설치되었다.¹⁵⁾ 武藏野美術大學은 1991년 대학60년사를 편찬 간행하면서 향후 80년사, 100년사 편찬을 위한 기본적인 사료 수집과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 보존하여 교육연구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大學史史料室>을 설치하였다.¹⁶⁾ 九州大學은 1992년 九州大學75年史編集室을 개조하여 <大學史料室>을 설치, 대학에 관한 사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대학 및 대학의 역사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연혁사 편찬이 계기가 되어 대학아카이브즈가 설립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100년사』를 발간한 이후 <연세기록보존소>를 만들었고,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을 계기로 <서울대학기록관리실>을, 인하대는 『인하대40년사』 발간 이후 <인하역사자료실>을 상설기구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는 1989년 <이화역사자료실>을 상설기구화하여 교사자료를 수집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994년 『이화100년사』를 발간하였다.

이상의 몇몇 대학은 대학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대학아카이브즈 형태의 기록관을 운영중인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사의 편찬사업을 종료한 직후 편찬실이 없어지고 더욱이 수집된 자료마저 사장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대학사 편찬만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편찬 이후에는 사장되고마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대학사 편찬은 대학아카이브즈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아카이브즈는 요즈음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대학사 편찬사업을 계승·전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적극 고려, 장려되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 개교

15) <http://nua.jimu.nagoya-u.ac.jp/about.html> ; 『アーカイブズ・ネットワーク』, 『記録と史料』, 1996.10., pp.79-80.

16) <http://www.musabi.ac.jp/history/text1.html>.

17) <http://www.arc.kyushu-u.ac.jp/mokuteki.html>. 이 밖에 대학박물관 기능으로 대학기록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東京商船大學100年記念資料館>·<金澤大學資料館>·<日本大學法學部80年記念館>·<和洋女子大學文化資料館>·<學習院大學史料館>·<大谷女子大學資料館>·<廣島女學院大學歷史資料館> 등을 들 수 있다(『博物館學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1996., pp.160-162).

를 기념하기 위하여 40년사, 50년사, 100년사 등 개교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학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학사 편찬 사업으로 대학기록의 중요성은 한층 고양된다. 즉 연혁사 편찬이 50년사 등으로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혹은 "대학사 연구나 편찬사업에 따라 새로운 연구성과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점, 초창기 대학에도 이른 시기부터 그 역사를 기록할 중요성이 넓게 이해되었다는 점" 등은 대학의 역사를 밝히는 기록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 일본 대학에서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年史 편찬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기념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료의 보존·이용이나 정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학사를 편찬하는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¹⁸⁾

이로 볼 때 한국에서의 대학아카이브즈 설립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사 편찬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대학기록의 중요성이 고양될 때 진전될 것이다.

3. 대학기록의 중요성과 관리체계

1) 대학기록의 중요성

대학기록(University Archives)이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생산되거나 대학의 업무 및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조직화된 문서를 말한다. 즉 대학 행정활동의 부산물로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되는 것을 말한다.¹⁹⁾ 다시 말하면,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 봉사, 행정, 학습, 교양 등의 교내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 수취 유지하는 자료"이며, 그 학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분류한 항목을 살펴보자. 일본의 寺岐昌男은

18) 澤木武美·鈴木秀幸·中野實·日露野好章·松崎彰,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 『記録と史料』, 1992.8., p.36.

19) Cesar Gutierrez Munoz, 『大學記録保存家』, 『記録保存』 5, 政府記録保存所, 1992, p.112.

20) 김상호,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3., p.2.

- 1) 대학운영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 簿冊, 事務記錄, 기타 文書
- 2) 대학 내 諸機關의 의사록, 의견서, 答申, 報告書 等
- 3) 대학이 간행하는 年報, 要覽, 雜誌, 新聞, 廣報紙誌 等
- 4) 대학졸업생의 졸업증서, 앨범, 강의 노트, 傳記 등(특히 당해대학에 관계한 것)
- 5) 學長, 學部長, 교수, 敎員 등이 私藏한 문서류 중, 특히 대학에 관계된 것
- 6) 대학설립자, 기부자, 졸업생 등 관계자의 문서
- 7) 대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記章, 門標, 記念品, 트로피(トロフィー), 旗, 制服, 制帽, 印璽 등의 물품
- 8) 대학에 관한 사진,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필름 등
- 9) 대학사에 관한 諸간행문헌
- 10) 學問史的인 의미를 지닌 실험도구, 연구실 제작품, 보고서 등
- 11) 기타 학교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특정 유형의 케이스 파일²¹⁾

로 분류하였다.²²⁾

이처럼 대학기록은 대학의 모든 출판물과 대학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서 등 직접적으로 해당 대학 자체의 연혁사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대학기록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기록학(Archival science)에서는 자료를 現用자료(Current record)와 非現用자료(Non current

21) 寺岐昌男, 「大學アーカイブズとなにか」, pp.2-3.

22) 한편 미국의 William J. Macher는 대학기록을 ① 학원 설립 허가, 법령 또는 등록문서, 그 이후 등록이나 학교의 사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인된 문서 ② (평의회 등과 같은) 조결 등의 통치기관의 회합에 대한 의사 결정, 의사록, 그리고 보완문서들 ③ 교수 교수-학생, 학생 통치 기관, 이를테면 위원회, 대학의회 등의 회합에 대한 비망록, 의사록, 그리고 보완문서들 ④ 최고 간부, 학장, 정책입안자 등의 왕복문서와 업무기록, 최고간부와 학술 및 행정관료의 출판과 비출판을 망라한 연간 보고서 ⑤ 학생 학술기록 ⑥ 예산과 재정 보고서 ⑦ 기본 학원의 임무를 다룬 출판물, 특히 과정 목록, 시간표, 혹은 수업일정, 세부 교과과정의 본질을 개혁적으로 다룬 교과과정 소책자, 그리고 학위요목 ⑧ 이름, 직함, 근무부서, 주소 등이 실린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동창생 주소인명록 ⑨ 학생, 교내 공식부서, 학생과 교수연합 등에서 발간한 신문, 소식지, 그리고 다른 발행물 ⑩ 행정부, 교수, 연구, 학생회 등에 의해 간행된 모든 다른 출판물, 교수 학자들의 정기간행물과 공식보고서부터 부서별 소식지와 학생조직의 성명서와 단면 인쇄물로 분류하였다((William J. Maher, 앞의 책, pp.25-26).

record)로 구분한다. 현용가치를 가진 자료는 사무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폐기되고 만다. 대학운영에 있어서 영구보존문서, 곧 非現用문서가 그 대학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통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장래 대학사 편찬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기록은 그 대학의 존립 의의를 밝혀주는 뿌리이며, 자긍심 고취의 도구이자 정체성 확립의 근본이 된다. 또한 넓은 의미로 학문문화·교육사 연구의 자료로써 가치를 지닌다.²³⁾

寺崎昌男은 대학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학기록물의 의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 1) 대학이라는 문화적 기관의 활동 기록을 증명하는 史·資料의 수집을 통하여 일국의 문화사 학문사 교육사의 資料庫를 형성
- 2) 정치사 사회사 學問史의 연구를 위한 소중한 寶庫
- 3) 졸업증서, 재학, 재직증명서류의 보관을 통하여 개인의 이력을 확인 보존하는 역할²⁴⁾

먼저 대학기록은 史料로 기능한다. 즉 각 대학의 기록은 개별 대학 자체의 사료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역사자료의 일부이다. 따라서 대학자료의 집적은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資料庫의 원천이 된다. 대학사 편찬 사업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은 해당대학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이다. 이 의미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한 행정문서 등과 같이 대학사 자료는 역사 자료의 범주에 들어간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 숭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민족말살정책에 맞서 민족 자존과 국가 주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대학기록은 한국 근대교육사에서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민족운동사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이 같은 대학기록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자료의 전체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연구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대학기록은 비단 개별 대학사 편찬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학술연구자료가 된다.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는 정치사·행정사·재정사 연구에 공헌하

23) 大藤 修·安藤正人 著, 『史料保存と文書館學』, 吉川弘文館, 1986, p.85.

24) 寺崎昌男, 앞의 글, p.4.

고, 기업단체 아카이브즈는 경제사·사회사에 기여한다면, 대학아카이브즈는 사회사·학술사·교육사·문화사에 공헌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한국에서의 초기 대학의 기록은 일제강점기의 정치사 내지는 사회사 자료로써 대학기록이 활용될 수 있다. 숭실대학에서 전개했던 민족운동이나 농촌운동은 당시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 행위이며, 이러한 활동을 증명하는 숭실대학의 기록은 귀중한 역사연구자료가 된다. 숭실대학과 연세대학의 경우, 미국 선교사(교수)들이 남긴 일기 서간 문서류는 대한제국말기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사·교육사·과학사·음악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당시 대학에서 발간한 문학잡지는 문학사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1916년 3월 한국 최초로 학생문예지를 발간한 숭실대학²⁶⁾에서는 문학지를 통하여 양주동·이효석·황순원·김조규·김현승 등의 글을 다수 게재하였는데, 이들의 글은 현재 문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대학기록은 대학관련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학적기록과 교직원 등의 재직증명을 위한 기록류는 사회에서의 개인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자료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대학기록은 이전 기록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대학운영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기록의 공개를 통한 대학민주화를 지향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2) 대학기록의 관리체계

이와 같이 대학기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이 이뤄지는 한국의 대학 현실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대학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아카이브즈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대학에 있어 대학기록관리의 선결 과제는 '대학사' 편찬을 통한 대학기록의 중요

25) 위와 같음.

26) 『숭실대학교100년사』, 숭실대학 출판부, 1997, p.237.

27) 서울대학에서는 대학기록의 가치를 ① 대학기록이 대학의 활동과 기능을 보여주는 내재적 가치 ② 대학 행정의 전례와 관행을 정착, 행정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 행정적 가치 ③ 대학운영과 관련한 법적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가치 ④ 학교사 간행과 기타 대학관련 연구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로 분류하였다(『서울대학교 기록보존사업에 관한 연구』(재판),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사료실, 1999.2. p.9).

성이 고양되고, 이와 함께 자료의 수장고나 보관 방법, 관리 이용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대학관계자에게 이해와 공감을 주어 제반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다.

먼저 대학아카이브즈는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²⁸⁾ 일반적으로 대학아카이브즈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역사자료와 행정문서를 종합적으로 취급한다는 특수한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의 성격 및 보존과 활용에 있어 도서관이나 박물관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구미의 대학아카이브즈는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²⁹⁾ 그 이유는 ① 아카이브즈의 연구자료 확보가 도서관의 一部分으로 파악되고 ② 아카이브즈가 도서관에 부속됨으로써 예산과 시설의 저비용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장이 아카이브즈에 이해와 인식이 없을 경우 아카이브즈의 활동은 약화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또한 아키비스트(Archivist)³⁰⁾는 타 부서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연구직이자 전문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리계통상 도서관과 아카이브즈는 개별적인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독립된 아카이브즈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³¹⁾

둘째, 대학아카이브즈의 활동을 보장하고 촉진할만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관리규정의 제정으로 기록의 무단

28)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학아카이브즈가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대학은 경북대의 <대학기록관>, 연세대의 <기록보존소>, 이화여대의 <역사자료실> 및 최근 설립을 추진중인 경남대의 대학기록관을 들 수 있다. 경희대·고려대·대구효성카톨릭대·숙명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 등은 대학자료실이 박물관에, 부산대·성균관대 등은 도서관에, 홍익대의 <학원자료실>은 재단사무실에, 서울대의 <대학기록관리실>은 기획실에 편제되어 있다.

29) 미국의 대학아카이브즈의 82%는 도서관에, 3%는 박물관에 편제되어 있으며, 15%만이 총장 직속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한다(최정대,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6., p.14).

30) 아키비스트란 “보존기록물(archives)의 생산, 활용, 평가, 수집, 폐기, 보존, 정리, 記述(description), 참고 열람서비스 등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기록물의 생산관리(records management), 기록물 보존관리(archives management), 기록물 열람 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정부기록보존소, 1999, 110-112쪽 참조).

31) 『東京大學關係諸資料の保存と利用に關する豫備的研究』報告書および同『附屬資料』抄録, pp.154-155.

폐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편찬과정상에 학교 자료 수집과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자료의 보존업무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기록관리 규정은 체계적인 기록운영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대학기록이 일부 부처 단위로 보존 관리된다면 망실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학아카이브즈에서 통합적인 보존 관리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산문서의 보존기한 명시와 분류기준의 마련 및 非現用문서의 이관과 아카이브즈에서의 보관 관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³²⁾

셋째, 기록관리 제규정과 함께 대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 내 자료 수집에 따른 절차상의 견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³³⁾ 힘없는 하위부서로 대학아카이브즈가 존재한다면, 즉 자료의 공개와 이관을 요구하고 강제할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활한 자료 수집 및 활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모든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즉 授權文書(Authorizing document)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수권문서의 요체는 문서가 파괴되기 전에 모든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에 있다.³⁴⁾ 따라서 대학기록의 수집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학아카이브즈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대학의 승인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있으며, 또한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원활한 아카이브즈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키비스트는 대학총장으로부터 기록정책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해당 대학의 기록에 대한 정의, 모든 기록물의 소유권의 확증, 사전 동의 없는 기록 파기의 예방,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필요한 법률적·재정적·행정적 동의를 확보 등을

32) 현재 한국의 경우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였고, 대부분의 대학은 박물관 규정 내에 있으며, 몇몇 대학은 아예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각 대학의 규정은 대학 내 각급기관에서의 생산문서의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을 명문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서 생산부서의 보존기한과 아카이브즈로의 이관 및 폐기 규정을 명문화할 때 본래적 의미의 아카이브즈 기능을 갖추게 된다.

33) William J. Maher, 앞의 책, p.187.

34) William J. Maher, 위의 책, p.59.

추구해야 한다.³⁵⁾

넷째, 가치 있는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록을 제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구(Archives)와 문서의 보존기한과 가치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Archivist)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서를 판단할 주체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도서관의 司書나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키비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료적 가치 판단이 유보된 채 문서생산부서 담당자의 임의에 의한 무단 폐기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집을 담당하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는 체제가 필요하다.³⁶⁾ 특히 대학아키비스트는 그 대학의 본질, 곧 대학의 기관 또는 대학을 정의하는 특징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생활하고 봉사하는 상태에서 대학의 精神을 共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³⁷⁾

마지막으로 대학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절한 보존환경을 갖춘 서고와 보존시설, 관리와 이용의 편리를 주기 위한 사무실과 열람실, 작업실의 확보는 필수적이다.³⁸⁾

4. 대학아카이브즈의 運用

한국에서의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사료의 수집과 편찬, 활용 및 (現用·非現

35) William J. Maher, 위의 책, p.289.

36) 澤木武美外, 앞의 글, p.39. 그런데, 대학기록의 가치를 모든 학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역사적 가치의 경중이 있기 마련이다. 동일한 잣대를 지닌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역사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37) Cesar Gutierrez Munoz, 『大學記錄保存家』, 『記錄保存』5, 政府記錄保存所, 1992, p.111·115.

38) 최근 정부기록보존소가 전국 329개 사립대학 등 각급 기관에 통보한 '정부 공공기관의 자료관 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각 대학에서 대학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물론이고, 이에 부수하여 1인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최소 10평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문서고 별도), 디지털자료화를 가능케 하는 전산시설, 도면 등 특수규격문서, 훼손문서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열람장비 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정부기록보존소, 『공공기관의 자료관설치·운영지침』, 2000.5.).

用)행정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대학기록이 대학사료로 기능하는, 행정자료를 포함하여 그 대학의 역사적, 증거적 성격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촉진하는 의미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대학아카이브즈의 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³⁹⁾

1) 대학기록의 조사 수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아카이브즈가 설치되고 기록관리규정이 제정되고 아키비스트가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았을 때 원활한 업무, 자료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의 대학아카이브즈의 설치 및 그 업무를 전담할 아키비스트의 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먼저 대학사 편찬에 따른 자료의 수집과 이용을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학기록의 수집이 대학사 편찬을 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편찬 후속작업으로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대학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수집된 제자료의 분산과 망실을 방지하고 보존·이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기본점은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염두에 둔 보존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대개 대학사 편찬은 단기간의 한정적인 작업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대학사 편찬에 이용했던 자료는 단순히 남겨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도 의미있는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편찬사업 종료 후에도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며, 동시에 누락된 자료의 보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⁴⁰⁾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소재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료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39) 김상호는 대학아카이브즈가 수행하는 기능을 ① 대학의 역사를 문헌으로 증거하는 대학사료의 수집과 보존 및 편찬 ② 대학의 부서 및 구성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공식적인 행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③ 대학과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주제 및 지역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으로 분류하였다(김상호, 앞의 글, p.17). 본 장에서는 ①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③의 기능은 주로 지방의 대학아카이브가 주목해야 할 항목이라 생각된다.

40) 澤木武美 外, 앞의 글, p.39.

예컨대 자료 수집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내 각 부서나 관계자와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에 의한 소재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외의 자료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숭실대학의 경우, 일제시대 존립했던 대학이나 기독교계통의 타대학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숭실대학 운영에 관련있는 선교사나 그 후손 및 미국의 선교본부, 혹은 각지의 졸업생에게서 정보를 수집·교환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기록의 경우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대학마다의 고유한 설립 이념과 특성화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관심분야, 경쟁력 있는 분야와 관련한 기록물의 집중적인 수집이 필요하다.⁴¹⁾ 이는 그 대학사의 장점을 외현할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의 역사자료는 단순히 교사자료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역사자료로 활용된다. 개화기·일제 강점기의 대학사 자료는 그 시대의 역사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숭실대학 출신자의 대부분은 민족운동에 헌신하였다. 차이석·변인석·김창준·조만식·배민수 등 평양 숭실 출신자 관련 기록은 숭실의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민족운동사의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일수록 졸업생이나 교직원의 유족, 또는 대학과 관련 있는 고인의 유품과 유물을 기증 받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아카이브즈에서 이러한 기록을 관장한다 함은 대학의 역사를 밝히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게 이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서기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구술자료의 수집이다.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근현대사 관련 기록은 상당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근현대사 관련 구술기록은 더욱 중요해진다. 숭실대학처럼 평양에서 신사참배로 폐교되었다가 전쟁 이후 서울에서 재건된 경우에 대부분의 대학기록의 소실된다. 따라서 평양숭실 역사의 상당부분은 구술기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집활동이 원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자 및 교내 구성인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야 한다. 기록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 및 기록 보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당국 및 문서담당 실무진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철저한

41) 김상호, 앞의 글, p.8.

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어렵다. 설령 대학아카이브즈가 설립되어 활동하더라도 기록의 보존 관리에 관한 학내의 전반적인 同意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수집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대학기록이 대학행정당국과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들의 몫이 아닌 대학 자체의 자산이며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것이라는 점과 대학기록의 행정적·증명적·학술적·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 수집과 관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학사 편찬을 계기로 명확한 기록 보존 관리의 이념을 확립할 때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⁴²⁾

2) 대학기록의 활용과 공개

대학사 편찬을 계기로 대학아카이브즈를 설치하고 대학기록이 가지는 의미성을 외현하기 위해서는 자료집·연구기요·사진집 발간, 열람 등으로 학술연구에 활용되어야 하고, 열람과 전시를 통하여 대학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케 해야 한다.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기록의 훌륭한 보존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존보다는 관리의 측면, 즉 대학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학자료의 활용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자료의 대부분은 대학사 편찬을 위해 수집되고, 또한 편찬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창고에 직행하기 때문에 망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편찬이념을 배경으로 한 수집된 자료의 이차적인 보존과 간행이 필요하다. 대학사 자료의 범주를 넓혀, 편찬이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각종의 간행물이나 사진집의 간행, 전시활동에서의 광범위한 문서 유물 등을 대학사 자료로 인식해야 한다.

먼저 일본에서는 대학사의 本編과 병행하여 資料集이나 研究紀要의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사 기술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⁴³⁾ 또한 시각

42) 澤木武美 外, 앞의 글, p.40.

43) 대표적인 몇몇 대학을 보면, 學習院大學史料館은 『所藏史料目錄』·『史料館紀要』를, 武藏野美術大學에서는 『大學史史料集』을, 東京大學史史料館에서는 『研究紀要』를, 九州大學史料館에서는 『大學史料叢書』·『所藏史料目錄』을 발간하였다.

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역사를 표현하는 圖錄이나 사진집 등도 편찬하여 종래의 '제도 연혁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⁴⁴⁾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영상·음성이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료로 이용하려는 점도 최근 일본 대학사 편찬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특히 研究紀要에서는 대학의 공적 간행물로서 나온 연혁사에서 기술하기 어려운 테마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료집에서는 正史인 연혁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⁴⁵⁾ 따라서 연혁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각종 대학사 자료 간행을 통하여 연혁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사 편찬 종료 후에도 대학사 편찬사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양하게 자료집⁴⁶⁾이나 자료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간행물⁴⁷⁾이 발간되어야 한다. 대학사 관련 자료집이나 연구기요의 발간과 대학사 자료의 전시를 통하여 대학이념이나 건학 정신에 역사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각 대학의 특성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⁴⁸⁾

다음으로 대학사 기록의 간행과 더불어 미간행된 역사자료 및 행정문서⁴⁹⁾의 공

44) 근대 한국의 대학에서도 이런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중앙대(80년사)·서강대(40년사) 등의 대학에서는 ○○주년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45) 澤木武美外, 앞의 글, p.40.

46) 한국에서 대학사 자료집을 대학사 편찬과 연동하여 간행한 대학은 아직 없다. 대학사자료집은 대학의 정체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학 역사 및 대학 동문과 관련된 역사자료 및 개인문집 등을 발간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숭실대학의 경우, 숭실대학 100년 화보집, 숭실대학 민족운동관계 자료집, 숭실대학 음악사자료집이나 대학 출판부에서 펴낸 것으로 현재 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農民生活』이나 문학잡지인 『崇實』, 『崇實活泉』 등의 발간이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47) <이화역사자료실>에서는 이화역사자료 제 1집으로 『이화의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제 2집으로 『이화 동창 문인 자료집』과 『이화 10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숭실대는 100년사 간행 이후 편찬 자료를 활용하여 『민족과 기독교와 숭실대학』·『기독교민족운동가 조만식』(이상 유영렬, 숭실대 출판부, 1998)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48) 澤木武美外, 앞의 글, p.41.

49) 역사자료와 행정문서의 경계는 모호하다. 필자는 역사학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역사자료로, 현재 행정업무에 필요한 문서는 행정문서로 구분하고자 한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퀘벡대학아카이브는 두 종류의 활동 계획, 곧 행정기록물관리프로그램과 역사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http://www.unites.uqam.ca/archives>),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대학일수록 이러한 이원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개도 대학아카이브즈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이다. 자료집으로 간행된 경우라도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의 경우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즉 기수집된 대학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보존문서 및 학교 홍보자료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학과 관련된 옛 고문서로 전산 자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활용함이 마땅하다. 이와 함께 대학의 행정에 부수하는 대학기록물은 각부서 상호간 사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⁵⁰⁾ 대학아카이브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대학에서의 정보의 증가, 정보 구매자와 제공자의 급증과 그러한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점이다.⁵²⁾ 대학기록의 조직화를 통한 공개와 서비스 강화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볼 때 대학아카이브즈의 중요 기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대학의 행정적·법적·재정적·역사적 근거는 그 대학의 기록정보(Archival information)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대학아카이브즈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역사자료와 非現用문서를 관리하며 이 문서들을 열람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²⁾

그러나 대학 행정과 관계없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타인에게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그 사본을 공여할 수 없으며, 학교 관련자의 신상에 관한 본인의 요구나 학술적 목적에 의한 자료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대학아카이브즈의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대학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열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학기록의 전시는 대학의 정체성 확보에 귀중한 가시적 기능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역사를 한 눈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이화여대, 고려대 등을 들 수 있다. <이화역사자료실>을 상설독립기구화한 이화여대는 '100주년기념박물관' 내에 상설전시실을 마련하여 주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 교사자료실을 설

50) 大藤修·安藤正人 著, 『史料保存と文書館學』, pp.85-86.

51) William E. Brown, Jr. and Elizabeth Yakel, "Redefining the Role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in the Information Age", *The American Archivist*, Vol. 59(1996), p.280.

52) William E. Brown, Jr. and Elizabeth Yakel, 위의 글, p.273.

치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학은 박물관과는 별도의 대학사자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성전문학교와 해방 이후의 고려대학 전시실로 이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행사에 맞춰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역시 박물관 내에 교사자료를 전시를 위한 상설전시실을 갖추고 있다.⁵³⁾

한편, 대학기록은 인류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기록의 이용이 학교 당국자나 일부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아카이브즈 소장 자료의 전시회 및 강좌를 통한 지역민과의 결합도를 높여나가고 지역민의 대학아카이브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⁵⁴⁾

3) 객관적인 大學史 서술

현재 한국의 각각의 대학은 개교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대학사를 편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자기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과장하거나 설립자를 미화하는 등 일방적인 대학사를 서술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사 서술의 오류와 한계를 방지하고, 대학기록의 광범위한 교류를 연구를 목적으로 한 <대학사편찬협의회>(가칭) 구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6년 4월, 關東地區大學史連絡協議會, 西日本大學史擔當者會 등이 토대가 되어 “대학사에 관한 정보교환과 연구 및 회원 상호의 질적 향상과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全國大學史資料室協議會>가 결성되어, “① 대학사에 관한 정보교환 ② 史資料의 수집 보존 이용에 관한 연구 ③ 연구회(研修會), 강연회 개최 ④ 회보 등을 발행⁵⁵⁾하고 있다.

대학기록 이용을 위한 대학간 협의회 구성은 이후 대학아카이브즈 설립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선계 대학끼리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근대 여명기 창립한 대학들끼리의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서울지역, 또는 서울 지역 내에서 각 권역별 대학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현재 대학사 편찬을 진행 중인 대학끼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편찬에 관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53) 최정태,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pp.15-16.

54) 大藤修·安藤正人, 앞의 책, pp.90-92 참조.

55) 高野修, 『日本における史料保存利用施設』, 『日本の文書館』, 岩田書院, 1997, p.77.

생각해야 한다. 각 대학의 대학사 편찬사업이나 기록의 보존과 관리 운용의 공유체제가 기반이 되어 점차 대학아카이브즈가 설립될 것이며, 전국적인 단위의 대학아카이브즈협의회 구성으로 발전될 것이다.

요컨대 현재 개별 대학의 대학사 편찬이나 대학아카이브즈는 개별대학의 자기 완결적인 편찬체제에서 각 대학이나 관련기관간의 연대 제휴를 중시하는 편찬체제 또는 기록관리체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대학간의 협의회를 통하여 각 대학의 수집 자료나 정보를 상호 이용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사 자료의 성격은 단순한 개별 대학사 편찬의 재료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강하게 띠어야 한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미션계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표되는 대학끼리 관련기록의 상호 교류와 연구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선교사의 선교·교육정책, 종교계 대학의 민족운동,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한 종교계 학교의 대응, 이들 학교에서 전개한 전도 음악활동의 성격 등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기록은 궁극적으로는 개별 대학과 관련된 자료이지만, 그 성격이나 의미의 파악은 타대학 또는 자료보존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제자료 중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 개별 대학기록의 보존은 유관 기관과의 제휴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배타적인 보존체제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⁵⁶⁾ 이와 동시에 배타적인 관리나 활용 역시 피해야 자기 대학 기록의 객관성과 사회성을 함께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기록은 대학자체의 역사를 충실히 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문연구의 도구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기록은 ① 대학사 ② 학생사 상사(학생운동사 포함) ③ 사회사 ④ 정치사 ⑤ 史料書 編纂 등에 이용될 수 있다.⁵⁷⁾

그리고 전국 단위의 대학아카이브즈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한국 근대 대학사·교육사·인물사 및 대학이 근대사에 미친 영향 등과 관련한 주제로 전문학술지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간의 이념적 학문적 지역적 편차를 없애고 객관적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대학사 편찬에서의 설립자에 대한 지나친 미화나 사료적 기반 없는

56) 澤木武美外, 앞의 글, p.42.

57) 小川 刊代子, 『SSAと大學アーカイブズについて』, 『東京大學史紀要』 4, p.23.

과장 서술 등을 방지하고 대학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협의회 체제를 통한 자료 공유 및 학술활동은 올바른 대학사 편찬, 대학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각 대학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서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아울러 한국 근대 사회사·학술사·교육사·문화사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아카이브즈에서의 대학사 자체의 연구기능 외에 그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기능도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와 관련한 기록의 비판적 수집 역시 대학아카이브즈의 중요한 책임이다. 대학아카이브즈는 이렇게 수집된 기록 자원을 지역사회의 정보와 문화 보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문헌적 유산들의 보존과 접근에 공헌하게 된다.⁵⁸⁾ 특히 지방(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아카이브즈에서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여 학술적 가치를 드높이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지방아카이브즈는 그 지역 관청에서 생산된 행정문서 뿐만 아니라 비현용의 관청문서나 지역에 전래되어 온 많은 종류의 사료를 계통적으로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중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문서는 대학아카이브즈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술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문서자료의 보존과 이용의 측면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아카이브즈에서 옛 행정자료 등의 사료를 분석하고 이를 학술업적으로 전환시킬만한 역량을 갖지 못한다거나 그 연구조직을 만들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학아카이브즈에서 사료 관련 전문연구자의 학문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⁹⁾ 일본의 滋賀大學의 史料館에서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풍부한 村落共有史料·행정문서 등을 이용하여 촌락경제사·사회사, 地域行財政史·政治史·文化史·古文書學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⁶⁰⁾

5. 맺음말

대학아카이브즈는 서구에서 일반화된 대학기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 대학

58) William J. Maher, 앞의 책, pp.10-11·96.

59) 大藤修·安藤正人, 『史料保存と文書館學』, pp.88-89 참조.

60) <http://www.biwako.shiga-u.ac.jp/shiryo/p16.htm>.

의 95% 이상이 아카이브즈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의 대학아카이브즈는 그 대학의 역사를 밝히는 자료의 수집과 이의 체계적인 서술을 통하여 대학의 정체성을 형성케 하며, 교육사·대학사 등 학술연구자료로써 이용되거나 또는 대학구성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존립을 증명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에서 태동하였으며, 점차 대학 자체의 연혁사를 중시하는 경향에 의해 확대 발전하였다. 대학기록의 수집과 정리와 대학사 편찬은 대학아카이브즈 설립의 토대가 되었는데, 실제 미국, 일본의 대학 및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대학아카이브즈가 설치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학사 편찬에 따른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대학아카이브의 설치와 함께 독립적인 활동을 부여하는 기록관리 규정의 제정과 기록의 역사적 행정적 가치판단 능력을 지닌 전문인력(Archivist)의 확보는 기록관리체제의 기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몇몇 대학만이 아카이브즈 형태의 대학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바른 기록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기록이 행정의 효율성, 법적 증명가치, 학술적 가치, 내재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기록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아카이브즈 설립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 인식은 무엇보다도 대학사 편찬에 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사 편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사 편찬 기획에서부터 자료의 수집 정리 활용 및 편찬 이후 자료의 발전적 계승까지의 종합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기록의 활용은 보존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으로, 자료 소재 파악과 학내외 자료 수집 계획, 대학사 편찬에 이어 관련 문서 자료집이나 사진집의 발간, 研究紀要의 간행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대학 구성원 전체의 자긍심 고취, 정체성 정립에 근본 바탕이 된다.

대학기록은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대학기록이 자체 대학사 편찬으로 그 수명을 다해서는 안되며, 대학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사를 한국 근대교육사의 영역으로, 나아가서는 한국근대 사회사·정치사·학생사상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대학 본연의 학술적 성과는 강화된다. 대학사 편찬에서 시작하여 자료집의 발간 등과 학술연구 자료로 그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간 자료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때, 대학아카이브즈는 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대학아카이브즈 설립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2.
- William E. Brown, Jr. and Elizabeth Yakel, "Redefining the Role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in the Information Age", *The American Archivist*, Vol. 59(1996).
- Cesar Gutierrez Munoz, 『大學記錄保存家』, 『記錄保存』 5, 정부기록보존소, 1992.
- 大藤修·安藤正人 著, 『史料保存と文書館學』, 吉川弘文館, 1986.
- 『博物館學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1996.
-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とはなにか』, 『東京大學史紀要』 4, 1983.7.
- 彌永史郎, 『大學文書館の成立過程』, 『東京大學史紀要』 4, 1983.7.
- 小川 刊代子, 『SSAと大學アーカイヴズについて』, 『東京大學史紀要』 4, 1983.7.
- 『東京大學史史料に関する提案二束』, 『東京大學史紀要』 5, 1986.2.
- 『東京大學關係諸資料の保存と利用に関する豫備的研究』 報告書および同 『附屬資料』 抄録, 『東京大學史紀要』 5, 1986.2.
- 澤木武美·鈴木秀幸·中野 實·日露野好章·松崎 彰,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 『記錄と史料』, 1992.8.
- 高野 修, 『日本における史料保存利用施設』, 『日本の文書館』, 岩田書院, 1997.
- 김상호,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2.
-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정부기록보존소 1999.
- 최정태,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6.
- 김기석,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현지 조사 결과보고』, 서울대 기획실 대학

기록관리실, 1999.5.

『서울대학교 기록보존사업에 관한 연구』(재판),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사료실, 1999.2.

『숭실대학교100년사』, 숭실대학 출판부, 1997.

정부기록보존소, '공공기관의 자료관설치·운영지침', 2000.5.

<http://solarsnet.snu.ac.kr/archive/Archives.htm>(서울대학교 대학기록관리실)

<http://www.unites.uqam.ca/archives>(캐나다 퀘벡대학아카이브즈)

<http://nua.jimu.nagoya-u.ac.jp/about.html>(일본 名古屋大學史資料室)

<http://www.library.tohoku.ac.jp/archives/gaiyo.html>(일본 東北大學記念資料室)

<http://www.arc.kyushu-u.ac.jp/mokuteki.html>(일본 九州大學大學史料室)

<http://www.musabi.ac.jp/history/text1.html>(일본 武藏野美術大學大學史史料室)

<http://www.biwako.shiga-u.ac.jp/shiryo/p16.htm>(일본 滋賀大學史料館)

<http://www.library.tohoku.ac.jp/archives/gaiyo.html>(일본 東北大學記念資料室)

Abstract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University and operation of University Archives

Han, Myoung Keun

This essay aims to search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focused on those archive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In early stages, university archives in the West began to be organized owing to evidence ability of their records. Then, the need to collect materials in publishing their history contributed to modernized university archives. This case is true to Japan. And university archives have been shaping based upon 'legislation of the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the public agencies act' in Korea.

University records are important to keep their pride and to confirm their identity and they are basic materials for the study of cultural, educational and social history, and have still the value of evidence. Their original function is to secure legal rights of their own members and to maxim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f necessary conditions of regulations, independent organizations, professional manpower, necessary facilities, and legal and executive authorities could be satisfied, academic archives might do their proper roles. That is to say, university archives must make their main functions to collect and search academic records and to publish abstracts of research products, and exhibit their holdings for

citizens around the academic institution. In addition, they must give basic matters for the writing of the history of university.